

고려시대 청자화분 연구

김 소 영*

- I. 머리말
- II. 화훼문화의 발달과 청자화분의 제작
- III. 청자화분의 조형과 화분대
- IV. 청자화분의 제작 시기 구분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 사람들은 정원에 화훼를 심어 완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기물을 사용하여 瓶花, 插花, 盆花문화를 향유하였다. 이 중 盆花는 화훼의 생명을 유지시켜 오랜 기간 완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瓶花, 插花와 구별된다. 고려시대 盆花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花盆’은 문헌기록과 실물자료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지만, 아쉽게도 소수에 불과하다.¹ 그러나 이러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청자화분은 기형과 장식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원통형, 항아리형, 盤形, 方形, 多角形 등 여러 기형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²

* 인천시립송암미술관 학예연구원

¹ 이러한 양적 한계 때문인지 고려시대 청자화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근래에 들어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 유진현, 「高麗 方形靑磁의名稱과用途에 관한試論의考察」, 『東垣學術論文集』14 (2013.5), pp.106-122; 金少英, 「高麗時代靑磁花盆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² 일반적으로 화분의 바닥에는 물 빠짐을 위한 배수구가 있다. 그러나 물을 조금만 주어도 되는 국화나, 창포와 연꽃

문양 역시 국화문, 모란문, 연화문, 물가풍경문, 용문 등 사실상 고려시대 청자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문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청자화분을 대상으로³ 당시 고려 사회에서 盆花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 청자화분의 조형적 양식과 제작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고려와 중국의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청자화분이 제작될 수 있던 사회적 배경을 알아 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편년 추정 가능한 유물과 전세품, 출토품을 분석하여 청자화분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동시에 청자화분과 세트를 이루어 盆花문화의 일부를 담당했을 화분대, 즉 器臺의 용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청자화분의 제작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Ⅱ. 화훼문화의 발달과 청자화분의 제작

1. 盆花문화의 형성과 발전

우리나라의 화훼문화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 百濟(BC18~AD660) 辰斯王 7년(391)에는 궁을 수리하면서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花草를 길렀다고 한다.⁴ 또 新羅(BC57~AD935) 文武王 14년(674)에는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전한다.⁵ 삼국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화훼문화가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중국 송대 문집인 『太平廣記』에는 신라가 唐

같은 수생식물은 굳이 배수구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배수구의 유무를 떠나 화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물을 모두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된 논고는 다음과 같다. (유진현, 앞의 논문, pp. 106-122)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향로로 인식되고 있는 두 가지 기물(양쪽의 귀가 생략되고 물가풍경문과 모란문 등이 시문된 방형 향로, 다각 향로)을 화분으로 추정하였다. 그 근거로 방형의 기물이 동시기 중국에서 화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조선 1485년에 간행된 『佛頂心多羅尼經』의 〈變相圖〉에서 다각의 기물에 화훼가 심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본 논고에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³ 花器의 종류는 花瓶, 水盤, 花盆 등 다양하지만, 본 논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화분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⁴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3 辰斯王 7年 春正月, 重修宮室穿池造山以養奇禽異卉.

⁵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4年 二月, 宮內穿池造山種花草養珍禽奇獸.

(618~907)에 화훼를 전해준 기록이 남아있다.⁶ 이를 통해 신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화훼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중국으로 간 화훼의 식재 형태는 화분에 심어져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제작된 〈蟾兔文圓瓦當〉(도 1)의 중앙에는 향아리처럼 보이는 기물에 활짝 핀 모란이 양각되어 있어, 당시 기물을 활용한 화훼문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7세기부터는 화분의 제작과 사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 1 〈蟾兔文圓瓦當〉, 통일신라, 지름 14.2cm, 두께 1.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끼이야기』, p.27)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문인, 즉 상류층이 누린 盆花문화의 양상이 심심찮게 확인된다. 예컨대 왕후들이 겨울에 핀 계관화를 보호하기 위해 화분에 심어 土室에 보관했다는 기록⁷은 왕실이 향유하던 盆花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 李奎報(1168~1241)는 崔忠獻(1149~1219)의 저택에서 화분을 보았고,⁸ 李穡(1328~1396)은 淸城府의 화원을 방문하고 크게 자라지 않는 분재한 소나무를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⁹ 화분은 실내에 배치되기도 하였는데, 이규보와 陳灌(1180 추정~?)는 책상 위에 석창포 화분을 두고 완상하였다고 전해진다.¹⁰ 여기서 이규보는 석

⁶ 李防等, 『太平廣記』卷 草木四 海石榴花 “新羅多海紅並海石榴 唐贊皇李德裕言 花名中帶‘海’者 悉從海東來.”(신라에는 해홍과 해석류가 많다. 당나라 이덕유는 말했다. 꽃 이름 가운데 ‘해’자가 붙으면 모두 바다의 동쪽으로부터 온 것이다.)

⁷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5 古律詩 次韻李百全學士復和雞冠花詩 “…奇花或有凌冬開 王侯第宅尤多矣 貯之玉盆栽土室 如護深閨處女季…”(겨울에 피는 신기한 꽃도 있어 왕후들의 저택에 더욱 많은데 화분에 심어서 토실에 저장하여 마치 규중처녀처럼 보호한다네.) 이 기록에 등장한 토실을 방한시설로 추정한 논고가 있다. 사공영애, 『고려시대 화훼문화와 화기(花器)·화병과 수반을 중심으로』, 『한국중세고고학』5 (2019.6), pp. 87-88.

⁸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卷23 記 晉康侯茅亭記 “…或安於盆盎中 雖隔絕地脈 猶得繁秀…”(혹은 화분 가운데 심어져서 비록 지맥을 끊고 있으나 오히려 번성하기도 하고) 이 기록에서 이규보는 최충현을 ‘진강후’라 칭한다. 최충현이 진강후에 책봉된 해는 1206년이고, 최충현이 죽은 뒤 1221년에 아들 최이가 물려받았다. 따라서 이규보가 최충현의 저택에 방문한 시점은 13세기 전반이었을 것이다.

⁹ 李穡, 『牧隱集』 牧隱詩藁 卷19 詩 昨與上黨 謁廣平侍中 至淸城侍中府… “…盆栽萬歲不長松 驚我老目仍躊躇…”(만세토록 자라지 않는 분재한 소나무는 내 늙은 눈 놀래키어 주저하게 하였네.)

¹⁰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卷13 古律詩 案中三詠 “小盆石菖蒲…蕭然几案上 永與我相依…”(작은 화분에 심은 석창포… 쓸쓸한 책상 위에 놓여 길이 나와 서로 의지하누나.); 陳灌, 『梅湖遺稿』詩 七言古詩 金明殿石菖蒲 “…誰識蒼然几案上 寸根歲久還生鬚…”(누가 알겠나. 고색창연한 저 책상 위에서 한 치 되는 뿌리 오래되면 도리어 잔뿌리 돌는 것을)

창포 화분을 ‘小盆’이라고 언급하였다. 비록 작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지만 고려에서 다양한 크기의 화분이 제작되고 소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盆花는 고려 후기 성리학을 배경으로 출사한 문인들에 의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集(1327~1387), 이색, 鄭夢周(1337~1392), 鄭道傳(1342~1398) 등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신진사대부는 유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君子’의 모습을 화훼에서 찾고 자기 수양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¹¹ 그들의 문집에 군자의 모습을 닮은 국화대나무·매화·소나무 등을 화분에 심고 완상한 기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¹² 실례로 이집, 이색, 정몽주, 李崇仁(1347~1392), 河崙(1347~1416)은 盆梅를 앞에 두고 聯句를 지으며 交遊하였다.¹³ 당시 이들이 읊은 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동석하였던 사람들이 현실 개혁적 성향이 짙은 사대부임을 고려하면 매화가 지닌 군자의 품성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다. 또한 화분은 문인의 서재를 장식하는 소품이 되기도 하였다. 李居仁(?~1402)은 서재에 松竹梅蘭을 심은 작은 화분을 두고 이를 완상하며 즐거워했다고 전해지며,¹⁴ 정몽주는 분재한 소나무 화분을 책상 옆에 두고 완상하였다.¹⁵ 이처럼 성리학과 결부된 문인의 화훼 취향은 다양한 형태의 화분이 등장하는 배경에 일조했으리라 생각된다.

^[1] 李穡, 『牧隱集』牧隱詩藁 卷18 詩 君子 “君子何所疾 沒世名不稱 所以學松柏 傲被霜雪凌…抱關擊柝者 亦當遵準繩.”(군자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면 죽은 뒤에도 이름나지 않는 거라. 이 때문에 소나무와 잣나무의 눈서리에 굴하지 않음을 배운다네…미관말집에 있는 관리들까지도 의당 법도를 좇아서 행해야 하리); 李集, 『遁村雜詠』五言四韻律 用安和寺壁上鄭狀元韻題中菴 “…買竹養盆中 自愧汚清淨 題詩面發紅…”(대나무를 사서 화분 안에서 기르고 스스로 오염됨을 부끄럽게 여기고 깨끗하고 맑아지려 시를 지어 얼굴에 붉음을 일으키네.)

^[2] 이러한 현상은 고려 후기에 유입된 원대 성리학이 經學을 위주로 하는 실천 중심의 학문이며, 수용층 역시 사장학 풍에 대한 비판의식이 철저한 현실 개혁적 성향이 강했던 사대부들이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鄭聖喜,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者들의 思想的 性格에 관한 研究」, 『東方學』4 (1998. 12), p. 157; 馬宗樂,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의 歷史的 意義」, 『한국중세사연구』17 (2004. 10), p. 240 참조.

^[3] 李集, 『遁村雜詠』遁村雜詠序 序 遁村先生雜詠序[河崙] “…繼而陶隱邀牧隱 圃隱兩先生及遁村設小酌 置盆梅于前 作梅花聯句 予亦往參席末 聞其警句…”(도은이 목은·포은 두 선생 및 둔촌을 초대하여 간단한 술자리를 베풀고 盆梅를 앞에 놓고 매화시 연구를 짓는데, 나도 그 말석에 참여하여 그 경구를 들었고)

^[4] 鄭道傳, 『三峯集』卷4 題跋 題蘭坡四詠軸末 “予在松京 日詣先生之室 左右無他物 惟琴書在床 傍置小盆 植松竹梅蘭於其中 翫而樂之…”

^[5] 鄭夢周, 『圃隱集』圃隱先生文集 卷之二 詩 蘭坡四詠 次陶隱 陽村 盆種松竹蘭梅松 “…封植雖今日 摩挲閱幾霜 屈渠中谷態 伴我北窓涼 固識非凡物 相參几案傍.”(흙을 북돋아 심은 것이 비록 오늘날지라도 어루만지며 보는 것이 어느 세월이던가. 개천을 관 계곡의 모양이 나와 짝하여 북창을 서늘하게 하는구나. 진실로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알건만 서로 살피기를 책상 옆에 놓고 하는구나.)

2. 송·원대 盆景문화¹⁶의 유입

중국 唐代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화훼문화는 宋代(960~1279)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북송의 수도 개봉에는 菓實이 무성하고 색채가 화려한 觀果식물을 화분에 심고 완상하는 것이 유행하였다.¹⁷ 바로 이 시기에 돌과 화훼, 화분을 조합하여 자연의 경치를 재구성해 낸다는 ‘盆景’이란 단어도 처음 등장하였다.¹⁸ 화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자기화분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화분은 汝窯, 南宋官窯, 耀州窯, 鈞窯, 哥窯 등 여러 요장에서 만들어졌으며, 각 요지별로 크기와 형태가 다른 특색 있는 화분을 생산하였다.

송대 화훼문화와 분경의 확산에는 문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송 太祖(재위 960~976) 이래 시행된 崇文抑武 정책으로 문인들은 애호하는 대상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¹⁹ 따라서 이들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집과 감상, 연구에 몰두하여 花譜를 저술하기 시작했다.²⁰ 화보에는 화훼의 품종, 분재하는 방법, 물주는 방법 등 문인들이 직접 화훼를 가꾸며 체득한 내용과 재배기술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렇게 문인들이 편찬한 화보는 송대 雕版인쇄술을 비롯한 출판업의 발달로 전국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²¹

이처럼 중국 내 성행하던 화훼문화는 고려와 송의 교류에 힘입어 고려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高麗史』睿宗(재위 1105~1122)과 毅宗(재위 1146~1170)대 기록에는 송나라 상인들이 왕에게 꽃나무와 진기한 화초를 바쳤다는 내용이 있다.²² 송을 출발하여 고려에 당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²³ 송 상인들은 화분에 식재된 화훼를 전했을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16] 盆景문화란 단지 분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분경을 영위하기 위해 동반되는 화훼, 花譜, 기물 등을 총칭한다.

^[17] 向群, 「宋代的城市與花卉業」, 『中國史研究』40 (2006. 2), p. 189.

^[18] 李樹華, 「中國植物盆景文化史上」, 『花木盆景(盆景石)』(2006. 7), p. 48.

^[19] 송문역무 정책은 ‘抑武’를 위해 ‘佑文’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고위직 관리로 문인을 임명하는 것은 물론 과거제도의 개혁, 학교 교육의 창설, 문신 儒士의 우대 등 일련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문인들은 ‘元官(필요 없는 벼슬아치, 쓸모없는 관리)’으로 자신의 취향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송대 대다수 화훼에 관한 서적은 이 雅興의 이고 화훼를 애호하는 문인들의 모필로 만들어진 것이다. 張文娟, 「宋代花卉文獻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p. 8.

^[20] 안예선, 「송대 문인의 취미생활과 보록류(譜錄類) 저술」, 『中國語文論叢』39 (2008. 12) 참고.

^[21] 張文娟, 위의 논문, pp. 10-11.

^[22] 『高麗史』睿宗 15年 六月, 辛卯 宋商林淸等獻花木; 『高麗史』毅宗 11年 秋七月, 戊子 宋商獻鸚鵡孔雀異花.

^[23] 송 상인들이 고려來航에 이용한 항로는 남방항로이다. 송 상인들이 明州를 출항하여 고려 예성강 하구 벽란도가 지 오는 데는 대략 25일 전후에서 40일가량이 소요되었다. 이들이 송으로 돌아가는 데도 비슷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과정을 통해 중국 화분이 고려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고려 후기 문인 이승인은 서향화를 구하고 읊은 시에서 “푸른 잎에 보라색 꽃이 가장 향기롭다고 화보에 적혀있다.”라고 말하고 있어²⁴ 고려 문인들이 송대 화보를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代(1271~1368)는 송대의 화훼·분경문화가 유지된 시기이다. 원대 정치가인 王恠(1227~1304)이 花匠인 王珪의 화원을 방문하고 쓴 시는 왕규가 화훼를 접목하는 기술이 뛰어났고, 호족들 사이에서는 개인 화원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하여 서로의 화원과 화훼를 비교하며 다투는 일이 빈번했음을 보여준다.²⁵ 또 원대 王德信(1234~1294)의 『奇妙全相注释西厢记』에 수록된 삽화를 통해 귀족의 정원에 진열된 화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화분의 제작은 龍泉窯, 景德鎮窯, 磁州窯 등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용천요 화분의 제작이 활발했는데 신안해저에서 출수된 渣斗形, 六角形 등의 화분을 통해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처럼 원대 무역자기의 품목에 화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고려 내에 중국의 분경문화가 전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대 상인의 상업 활동이나 원과 고려를 오가던 이들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忠肅王(재위 1313~1330, 1332~1339)은 심양에서 고려로 돌아올 때 다양한 화훼 품종을 가져왔다고 전해진다.²⁸ 또 고려 후기 문인 閔思平(1295~1359)은 忠定王(재위 1349~1351)의 수행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올 때 모란 뿌리를 가져오기도 하였다.²⁹

24 李崇仁, 『陶隱集』卷3 詩 再呈尹判書求瑞香 青葉紫花最香譜云 “床頭置易淨無塵 日色烘窓暖似春 青葉紫花香可愛 煩公擔送伴幽人.”

25 王恠, 〈花工王氏歌〉 “平生有技真可人 好个春风接花手 木翁夺秀孕黄婆 转眼红朋栖碧友 刘郎秀春趣已成 往往豪家斗招诱…”(吴文涛, 『元代大都城南花卉文化的兴起』, 『北京社会科学』(2010.2), p.93에서 발췌)

26 李树华, 앞의 논문, p.49.

2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新案海底遺物』(同和出版社, 1994).

28 姜希顔, 『養花小録』「菊花」 “吾東方名花俱非本國所産 前朝忠肅人侍帝庭 向公主有寵 及東還 天下韻芳珍卉 帝皆賜賚 今之烏紅燕京黃白閨深 錦銀兩紅鶴頂紅笑雪烏等菊 若黃白牡丹紅牡丹洛陽紅 若重葉山茶重葉梅 若碧桃粉桃緋桃 若瑞香 若青黑葡萄 皆當時出來者…”(강희안·이종목 역해, 『양화소록』(아카넷, 2012), pp. 131-132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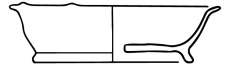
29 閔思平, 『及菴詩集』卷5 詩 牧丹詩 “…移根京洛過遼東 氣稟初疑忌土風…”(연경에서 모란 뿌리를 싣고 요동을 지나왔노니 처음엔 생리가 우리 풍토와 맞지 않는가 의심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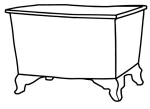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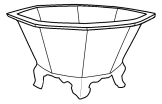
Ⅲ. 청자화분의 조형과 화분대

이 절에서는 청자화분의 기형과 문양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또 화분과 조합을 이루어 사용되었을 화분대의 용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사실상 절대 편년 유물이 없고, 대부분 파편의 형태로 남아있는 청자화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편년 추정이 가능한 유물과 완형의 전세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형(표 1)

〈 표 1 〉 청자화분의 기형 분류

기형	도면	특징
원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부에서 구연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폭이 넓어짐 구연은 둥글게 말아 처리함
항아리형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체는 풍만하고 구연은 외반됨 최소동폭지점이 중상부에 위치
	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체는 풍만하고 구연은 외반됨 최소동폭지점이 상부에 위치
	B-1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체는 풍만하고 구연은 외반됨 구연의 형태에 따라 세분화(花形, 盤口形)
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름이 넓은 것에 비해 높이가 낮음 구연의 전 가장자리는 花形 장식함

기형		도면	특징
방형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다리꼴의 몸체에 4개의 다리가 부착됨 구연이 별다른 마감처리가 없음
	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다리꼴의 몸체에 4개의 다리가 부착됨 구연이 전을 이룸
다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체가 7면 혹은 8면이며, 다리가 부착됨

1) 원통형

저부에서 구연으로 올라 갈수록 점차 폭이 넓어지며 구연은 둥글게 말아 처리하였다. 보통 바닥 중앙에는 원공이 한 개 있다. 굽은 다리굽, 안굽, 평저 형태이다. 높이는 15~33cm이다. 이 기형은 강진 사당리 '가'구역에서 파편으로 출토된 사례가 있으나 극히 소수이며³⁰ 대부분 전세품이다. 원통형은 전면 음각기법으로 시문된 예부터³¹ 14세기 이후 인화기법으로 간략화·도식화된 문양을 표현한 예까지³² 모두 확인되어, 오랜 기간 청자화분의 기형으로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향아리형

몸체는 풍만하고 구연은 외반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구연은 둥글게 말아 처리하나 일부 花形과 盤口形도 확인된다. 보통 바닥 중앙에는 원공이 한 개 있다. 굽은 다리굽, 평저 형태이다. 높이는 22~32cm이며, 원통형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다.

³⁰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2015), pp. 300-301, 도656-657-659.

³¹ 정식적인 발굴조사는 아니지만 일본인 후까다(深田泰壽)가 유천리 요지에서 도굴하여 私藏했던 유물 가운데 〈靑磁陰刻蓮花文花盆〉이 포함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扶安 柳川里窯 高麗陶器』(1983), p. 21.

³²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IV 북한의 주요박물관 소장품』(2004), p. 71, 도92.

향아리형은 최소동폭지점이 중상부에 위치하는 A형과 최소동폭지점이 상부에 위치하는 B형으로 분류되며, B형은 구연의 형태(화형, 반구형)에 따라 B-I 형으로 세분화된다. 생산지는 강진과 부안지역을 중심으로³³ 용인 보정리,³⁴ 해남 진산리 일대에서도 제작되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³⁵ 편년 추정 가능한 유물은 용인 보정리 요지(12세기 중반 이후) 출토 화분, 마도 1호선(1207~1208년 이전) 출수 화분,³⁶ 진도 용장성(1271년 하한) 출토 화분편이 있다.

3) 盤形

입지름이 넓은 것에 비해 높이는 낮으며 구연의 전 가장자리 부분을 눌러 花形을 장식하였다. 바닥 중앙에는 원공이 한 개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약간 외반되었다. 이 기형은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靑磁鐵彩盤形花盆〉³⁷ 2점이 유일하여 비교대상이 전무하다.

4) 方形

위는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역사다리꼴의 몸체에 4개의 다리가 부착된 형태이다. 높이는 11~19cm로 원통형과 향아리형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입지름은 11~39cm로 넓다. 이 기형은 구연이 별다른 마감처리가 없는 A형과 구연이 전을 이루는 B형으로 구분된다. 다리는 雲形이 부착되었다.³⁸ 몸체 바닥에는 원공이 없다. 방형 화분은 강진 용운리 10호 II 층과³⁹ 강진

³³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5), p. 300, 도655, p. 452, 도1032. 이외에 강진 당전마을, 용문마을 등지에서도 화분편이 발견되었다. 김소영, 앞의 논문 (2015), pp. 36-39 참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83), p. 23.

³⁴ 畿甸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조사 보고서 〈본문·도면〉』(2006), pp. 204-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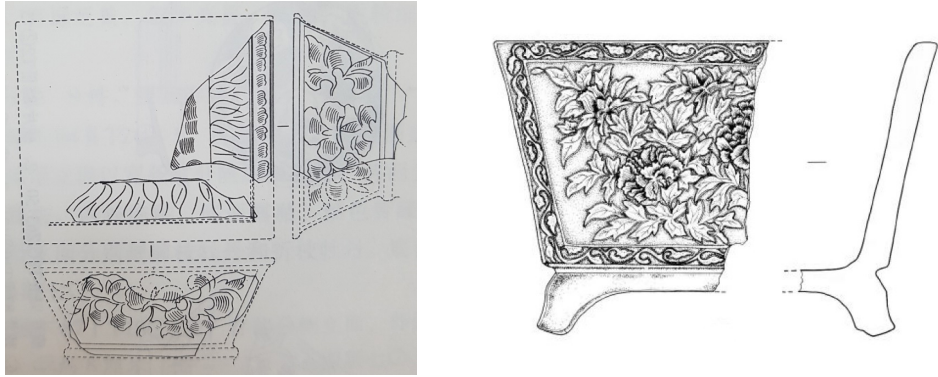
³⁵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화분의 조형 양식이 해남 진산리 17호 요지에서 수집된 유물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출수된 화분의 제작지를 해남 진산리 일대로 추정하였다. 이종민, 『泰安 馬島 해저출토품으로 본 고려 중기 청자의 편년문제』, 『梨花史學研究』42 (2011. 6), pp. 40-41.

³⁶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2010), pp. 224-228.

³⁷ 이들은 보고서상에 〈靑磁花盆〉으로 분류되어 있어 화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10), pp. 229-230) 아울러 보고서상에는 〈靑磁花形花盆〉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화분의 내외면 대부분이 검은색을 띠며 굽 안바닥에 철재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靑磁鐵彩盤形花盆〉으로 판단하였다.

³⁸ 방정형향로의 다리를 圓柱形, 雲形, 獸面形 세 가지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 (문종근, 『高麗 前期 靑磁香爐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 65-66) 방형과 다각형 화분의 다리 형태는 이 분류법을 따랐다.

³⁹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도판편』(1996), p. 466, 도788-789.



도 2-1 〈方形花盆片〉, 宋, 現高6.7cm, 口徑16.3×15.5cm, 底徑8.2×7.5cm, 요주요 출토(『宋代耀州窯址』, p.261)
 도 2-2 〈青磁半陽刻牡丹文方形花盆片〉, 고려 12세기, 現高15.4cm, 강진 용운리 10호 II 층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도판편』, p.199)

사당리 ‘가’구역,⁴⁰ 부안 유천리에서 소수 파편으로 발견되었고⁴¹ 이 외에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完形이 발견된 바 있다.⁴²

한편, 방형 화분은 요주요, 자주요, 경덕진요 등 중국 남북방 요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던 기형이다. 이 가운데 북송 요주요에서 출토된 화분편은 강진 용운리 10호 II 층에서 출토된 화분편과 비교할 때 유사점이 확인된다(도 2). 두 점은 파편으로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지만 역사다리꼴의 몸체, 몸체 바닥면에 부착된 다리의 흔적, 외면 가득 모란문을 시문했다는 점이 동일하다. 이러한 형태의 화분이 요주요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때는 북송 晩期(1086~1127)로 확인되며,⁴³ 고려의 경우 대략 12세기 전반 이후를 상한으로 하는 강진 용운리 10호 II 층에서 출토되었다.⁴⁴ 따라서 고려의 방형 화분은 12세기 전반경, 중국 요주요 화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⁵

이후 12~13세기를 거치며 방형 화분은 중국의 조형에 일부 변용을 가해 고려만의 양식

⁴⁰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5), p. 279, 도614-615.

⁴¹ 국립중앙박물관,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2011), pp. 142-143.

⁴²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2015), pp. 114-117.

⁴³ 陕西省考古研究所 耀州窑博物馆, 『宋代耀州窑址』(北京: 文物出版社, 1998), pp. 587-591.

⁴⁴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1996), p. 466, 도789.

⁴⁵ 12세기 전반은 예종~인종대로 중국의 문물과 제도의 유입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해안, 2006), pp. 63-65 참고.

을 만들어 내었다. 방형의 몸체는 유지하지만 몸체 네 면에 물가풍경문이나 용문을 압인양각하고, 바닥에는 배수구를 만들지 않았다. 이는 배수구의 유무가 혼재되며 주로 화훼문을 시문했던 중국의 경우와 구별되는 점이다.⁴⁶

5) 多角形⁴⁷

7면 또는 8면을 지닌 多角의 몸체에 다리가 부착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구연은 편평하고 넓은 전을 가졌으나 드물게 花形을 띤 전의 모습도 확인된다.⁴⁸ 외면의 각진 모서리에는 연주문 장식이 있거나 생략된다. 연주문의 표현방식은 貼塑하거나, 돌대문을 부착한 후 도구를 사용하여 찍어내거나, 기면 위에 바로 도구를 사용하여 찍어 내는 등 다양하다. 다리는 雲形과 獸面形으로 분류된다. 생산지는 강진 사당리 요지와⁴⁹ 부안 유천리 요지이며⁵⁰ 소비지로는 강진 월남사지,⁵¹ 진도 용장성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⁵²

다각형 화분은 고려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기형이다. 이처럼 다각의 몸체를 지닌 화분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팔각 접시, 팔각 장경병 등 각진 기물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선행하던 방형 화분의 조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적으로도 방형 화분은 14세기 들어 점차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다각형 화분은 고려 후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방형화분을 대체하는 기형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으로 보인다.

⁴⁶ 중국 요주요, 자주요, 경덕진요에서 제작된 방형 화분은 요장별로 배수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문양은 모란문, 연화문, 인동문, 파초+쌍학문, 괴수문 등이 시문된다.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景德镇民窑博物馆, 『景德镇湖田窑址 1988-1999年考古发掘报告』(北京: 文物出版社, 2007), p. 265; 北京大學考古系 河北省文物研究所 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北京: 文物出版社, 1997) 참조. 이는 양국이 식재했던 식물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배수구의 유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화훼를 식재할 수 있었겠지만, 고려는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수생식물을 가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방형 화분의 문양으로 물가풍경문이 선호된 것도 이러한 연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⁴⁷ 다각형 화분은 대부분 파편으로 유형 분류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 유형을 나누지 않았다.

⁴⁸ 고려청자박물관, 『2016 고려청자박물관 특별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2016), p. 124.

⁴⁹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5), p. 280, 도618.

⁵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83), p. 20.

⁵¹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고려청자의 최근 발굴조사 성과 특별전』(2013), p. 84.

⁵² 崔盛洛, 『珍島龍藏城』(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진도군, 1990), p. 207, 도1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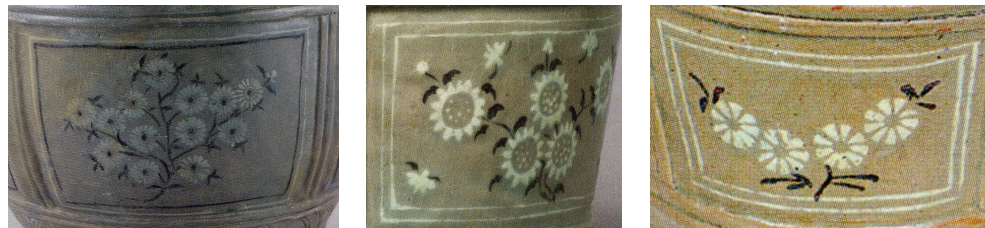
2. 문양

1) 주문양

(1) 국화문

국화문은 원통형, 항아리형, 다각형 화분에 상감기법으로 시문된다. 이 가운데 원통형과 항아리형 화분에서는 돌대문으로 구획된 방형의 공간에 국화문은 모란문과 번갈아 시문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당시 대다수의 청자 기종에 국화문과 모란문이 상감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화훼를 심고 가꾸는 ‘화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고려인이 자주 접하거나 즐겨 심던 화훼를 화분의 문양으로 채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의 국화문은 折枝形으로 줄기에서 뻗어 나온 꽃과 꽃봉오리, 잎을 묘사하였고 꽃은 수술을 중심으로 얇고 작은 꽃잎이 촘촘히 붙어 있는 형태이다(도 3-1). 이후 14세기에 이르면 국화문은 간략화·도안화의 경향이 짙어진다.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의 국화문은 뻗어 나온 줄기에 꽃과 꽃봉오리, 잎이 달린 구성은 일반적인 국화절지문과 동일하나 꽃의 표현(원의 바깥으로 끝이 뾰족한 꽃잎을 시문, 원 내부에는 여러 개의 점을 찍어 수술을 묘사)에는 차이가 있다(도 3-2). 이 같은 국화문은 유레가 드물어 문양의 형태만으로 제작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상단 보조문양으로 자리한 연화당초문은 1332년으로 편년되는 호암미술관 소



도 3-1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 고려 13세기 후반, 高27.3cm, 口徑35.6cm, 底徑21.5cm, 호림박물관 소장(『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 靑瓷Ⅱ』, p.95)

도 3-2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 고려 14세기, 高20.7cm, 口徑26.6cm,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p.82)

도 3-3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 고려 14세기, 高16.5cm, 개성 고려박물관 소장(『북한의 박물관』, p.247)

장 〈靑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의 연화당초문과 유사하지만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보여 14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³ 한편 국화문은 고려 후기 들어 인화기법으로 시문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예로 개성 고려박물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이 있다(도 3-3). 비어있는 원의 둘레에 9개의 꽃잎을 둥글게 배열했으며 줄기와 잎은 짧은 선을 그어 단조롭게 표현하였다.

(2) 모란문

모란문은 원통형, 항아리형, 방형, 다각형 화분에 상감 또는 반양각 기법으로 시문된다. 상감된 모란문은 절지형으로, 활짝 핀 한두 송이의 꽃을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꽃봉오리와 여러 개의 잎이 배치되는 형상이다. 이러한 예로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이 있다(도 4-1). 아울러 모란문의 형태적 도안화가 진행된 예도 확인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靑磁象嵌辰砂彩牡丹蜂文花盆〉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곧게 뻗은 줄기에 모란꽃과 꽃봉오리가 수직의 일직선상에 자리 잡고 그 주위를 잎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며, 전체적으로 마름모 형상을 띤다(도 4-2). 형상 자체도 특기할 만한데 꽃과 꽃봉오리가 수직으로 연이어 배치되는 구성은 매병, 주자 등에 보이는 연화절지문의 도안과 유사하여 이채롭다. 끝



도 4-1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 고려 13세기, 高19.2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高麗靑磁への誘い』, p.85)

도 4-2 〈靑磁象嵌辰砂彩牡丹蜂文花盆〉, 고려 13세기, 高32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삼성미술관 리움 홈페이지)

도 4-3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 고려 14세기, 高16.5cm, 개성 고려박물관 소장(『북한문화재해설집Ⅳ 북한의 주요박물관 소장품』, p.71)

⁵³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花盆〉의 상단에 시문된 연화당초문은 가는 줄기의 끝에 연꽃이 매달려 있다. 연꽃의 내부에는 蓮子를 점을 찍듯 흑상감하였고 외부에는 3개의 꽃술을 시문하였다. 줄기와 연꽃 주위에는 연잎을 성글고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이 연화절지문은 줄기와 연잎의 표현에서 1332년으로 편년되는 호암미술관 소장 〈靑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의 연화절지문과 유사하다. (해강도자미술관, 『高麗時代 後期 干支名象嵌靑磁』(1991), p.26) 다만 호암미술관 소장품이 고려미술관 소장품에 비해 연꽃의 세밀함이 떨어지고 간략화된 상태이므로 고려미술관 소장품의 제작 시기가 좀 더 앞섰을 것으로 생각된다.

으로 개성 고려박물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文花盆〉의 모란문은 꽃잎을 등글게 묘사하였고, 줄기와 잎은 단조롭게 표현하였다(도 4-3). 앞서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과 비교할 때, 모란문의 구도는 동일하나 표현이 단순화된 것을 알 수 있다.

(3) 연화문

연화문은 원통형, 항아리형 화분에 시문된다. 국화문과 모란문에 비해 시문 비율은 낮지만 음각, 압인양각, 철백화, 상감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靑磁陰刻蓮花文花盆〉은 몸체 양면에 활짝 핀 연화절지문이 시문되었다(도 5-1). 전면 가득 음각기법을 사용하여 연화를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태토와 유약의 상태도 양호하여 12세기 이른 시기에 제작된 화분으로 추정된다. 또 호림박물관 소장 〈靑磁壓印陽刻蓮唐草文花盆〉에는 압인양각된 연화당초문이 시문되었다(도 5-2). 이와 유사한 파편이 강진 사당리 '가'구역에서 출토된 바 있어 제작지를 추정할 수 있다.⁵⁴ 끝으로 철백화 기법을 사용하여 연화문을 표현한 예는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 〈靑磁鐵白畫蓮花文花盆〉이 있다(도 5-3). 중앙에 연봉오리를 두고 그 좌우로는 뻗어나가는 잎을 활달한 필치로 그려내었다. 이와 유사한 파편은 부안 유천리 요지 출토품에서 확인된다.⁵⁵



도 5-1 〈靑磁陰刻蓮花文花盆〉, 고려 12세기, 高24.4cm, 口徑31.3~33.3cm, 底徑29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필자그림)

도 5-2 〈靑磁壓印陽刻蓮唐草文花盆〉, 고려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 高15cm, 口徑20.8cm, 底徑17.6cm, 호림박물관 소장(『고려청자』,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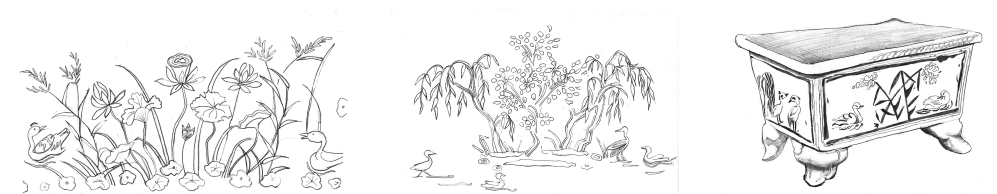
도 5-3 〈靑磁鐵白畫蓮花文花盆〉, 고려 13세기, 高23.5cm, 口徑32.5cm, 底徑19.5cm,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鮮文大學校博物館 名品圖錄』, p. 59)

⁵⁴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5), p. 504, 도123.

⁵⁵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83), p. 22.

(4) 물가풍경문

물가풍경문은 원통형과 방형 화분에서 확인되며 압인양각,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시문하였다. 특히 방형 화분에는 蒲柳水禽文, 蓮池水禽文, 花樹水禽文, 葦蘆蒲柳水禽文 등 다양한 물가풍경문이 표현되어 주목된다. 연지수금문은 보스턴미술관 소장 〈靑磁壓印陽刻蓮池水禽文方形花盆〉에서 확인된다(도 6-1). 연밭을 지닌 연화를 중심으로 연잎, 갈대 등이 어우러져 배치되었고, 화면 양 끝에는 원앙 두 마리가 유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도상을 지닌 파편이 강진 용운리 10호 II 층과⁵⁶ 강진 사당리 '가'구역에서 출토된 바 있다.⁵⁷ 화수수금문은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靑磁壓印陽刻花樹水禽文方形花盆〉에서 확인된다(도 6-2). 꽃나무가 만발한 연못가에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 오리와 새를 묘사하였다. 이와 동일한 도상을 지닌 파편이 국립중앙박물관 동원 소장품에서 확인된다.⁵⁸ 한편 대부분의 방형 화분에 물가풍경문이 압인양각된 것과 달리 간송미술관 소장 〈靑磁象嵌葦蘆蒲柳水禽文方形花盆〉은 상감장식의 예로 주목된다(도 6-3). 전면과 측면에는 각각 위로수금문과 포류수금문을 시문하였다. 특히 포류수금문은 버드나무 옆에 두 마리의 새가 마주 보고 서있는 도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도 6-1 〈靑磁壓印陽刻蓮池水禽文方形花盆〉, 고려 12세기, 高14cm, 長16×10.8cm, 보스턴미술관 소장(필자그림)

도 6-2 〈靑磁壓印陽刻花樹水禽文方形花盆〉, 고려 12세기, 高13.7cm, 長27.4×27.1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필자그림)

도 6-3 〈靑磁象嵌葦蘆蒲柳水禽文方形花盆〉, 고려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 高10.6cm, 간송미술관 소장(필자그림)

⁵⁶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1996), p. 466, 도788.

⁵⁷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5), p. 502, 도108.

⁵⁸ 국립전주박물관, 『고려청자의 頂點을 만나다 부안청자 강진청자』(2018), pp. 152-153.

(5) 용문

용문은 방형 화분에서 확인되며 압인양각 기법을 사용하여 시문하였다. 용문은 강진 사당리 '가'구역에서 출토된 <靑磁壓印陽刻龍文方形花盆片> 2점이 유일하다(도 7).⁵⁹ 용은 파도 속에서 유명하고 있는 도상으로 陶范을 사용하여 찍어 내었다. 이와 같은 파도와 용의 조합은 강진 용운리 10호 II 층에서 출토된 향로편에서도 확인된다.⁶⁰



도 7 <靑磁壓印陽刻龍文方形花盆片>, 고려 12세기, 現高(좌)12.8cm, 現高(우)9.9cm, 강진 사당리 '가'구역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 p.279)

(6) 돌대문과 이중 방형선문

돌대문은 원통형과 향아리형 화분의 기면에 둘러진 도톰한 띠를 말한다. 12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운영된 용인 보정리 요지에서 출토된 화분에는 가로방향의 돌대문이 한 줄 둘러져 있다. 또 마도 1호선(1207~1208년 이전)에서 출수된 화분에는 이중 돌대문이 가로방향으로, 한 줄의 돌대문이 세로방향으로 둘러진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진도 용장성(1271년 하한)에서 출토된 화분에는 이중 돌대문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둘러져 있다(도 8). 이러한 흐름을 통해 볼 때, 가로 방향의 돌대문에서 세로 방향의 돌대문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 이중 돌대문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둘러지는 구성이 정착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돌대문의 변화 양

⁵⁹ 각주 40과 동일.

⁶⁰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1996), p.465, 도784.



도 8-1 <靑磁花盆>, 고려 12세기, 高24cm, 口徑30.3cm, 底徑19.8cm, 용인 보정리 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조사보고서 <사진>』, p.173)

도 8-2 <靑磁花盆>, 고려 1207~1208년 이전, 現高25.2cm, 口徑(추정)30.2cm, 태안 마도 1호선 출수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p.225)

도 8-3 <靑磁象嵌菊花牡丹文花盆>, 고려 1271년 하한, 現高16.8cm, 底徑(추정)12cm, 진도 용장성 출토 (필자촬영)

상에 따라 제작 시기의 선후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통형, 향아리형 화분의 기면에 돌대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 고려시대 도기화분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도기화분은 이색의 『牧隱集』에 '瓦盆'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어,⁶¹ 작자의 생몰년을 고려할 때 14세기 전반에서 후반 사이에는 제작되고 소비된 것이 분명하다. 또 II 장에서 전술했듯이 7세기가 화분 제작의 開始 시점임을 상정한다면, 고려초부터 후기까지 도기화분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고려시대 화분은 먼저 도기로 제작되다 어느 시점에 청자로 변안된 것이며, 이들은 고려 전 기간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⁶²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도기와 자기가 기종과 기형을 공유하며 제작되었다는 점에서,⁶³ 선행하던 도기화분의 조형이 청자화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자화분에 보이는 돌대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등

⁶¹ 李穡, 『牧隱集』 牧隱詩藁 卷19 詩詠盆松 “雪嶺迷煙日 胡然在瓦盆…” (눈 쌓인 산 흐린 햇빛에 희미할텐데 어찌하여 이와분에 와있단 말인가.)

⁶² 자기화분은 통기성이 좋지 않아 식물 재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기화분이 적절하다. 다만 도기화분은 관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화분을 套盆으로 하여 도기화분을 넣어 사용한다. (方文, 『古盆收藏』, 『温州人』(2011.9), p.86; 刘若琳, 『晚清官窑粉彩花盆』, 『收藏界』(2006.7), p.66) 고려에서 화분의 사용이 중국의 사례와 동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기가 자기에 비해 식물의 생장에 더 적합한 재질이므로 도기화분의 제작은 꾸준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⁶³ 고려시대 대반, 매병, 정병, 표형병, 편병, 향완 등은 도기와 청자로 모두 제작되었으며 기형적으로 친연성을 갖는다. 한혜선, 『高麗時代陶器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pp.252-259 참고.

장하게 된 문양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도기화분의 영향으로 돌대문이 장식됐다 하더라도, 고려 중기부터 후기까지 더 나아가 조선시대까지 화분의 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돌대문이 오랜 기간 화분의 문양으로 선호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돌대문은 전체의 기면을 분할하여 효과적으로 문양대를 구획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양각된 기면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운반의 용이함을 위해서이다. 원통형과 항아리형 화분은 높이 15~33cm, 입지름 20~47cm로 대형에 속한다. 화분은 자기라는 재질적 특성상 무게감이 있는데, 여기에 화훼를 식재하게 되면 무게는 더해진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화분에 물을 주거나 별을 쓰이게 할 목적으로 운반할 때, 돌대문 위에 손을 올려두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돌대문을 기반으로 끈이나 도구를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중 방형선문은 주로 원통형, 항아리형 화분에 나타난다(도 9). 이들은 백상감 되거나 혹은 흑백상감 되는 형태로 표현되는데, 전자가 대부분이다. 청자화분 이외에 이중 방형선문이 확인되는 기종은 팔각 접시와 陶板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면의 공간을 구분 짓고 문양대를 구획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자화분의 경우, 한차례 돌대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상태에서 다시 그 내부에 이중 방형선문을 시문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화훼문이나 물가풍경문을 시문하고 테두리에 이중 방형선문을 둘러 화훼화나 풍경화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화분이 화훼를 식재하고 가꾼다는 기본적인 용도를 넘어서, 완상과 장식을 겸한 미술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 9-1 <靑磁象嵌蓮池蒲柳水禽文花盆>, 고려 13세기 후반~14세기, 高1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뮤지엄 홈페이지)
 도 9-2 <靑磁象嵌菊花牡丹文花盆>, 고려 13세기 후반, 高27.3cm, 口徑35.6cm, 底徑21.5cm, 호림박물관 소장(『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 靑瓷Ⅱ』,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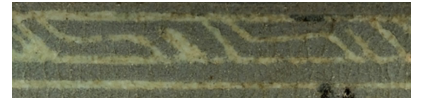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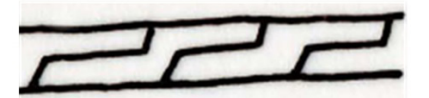
2) 상단 보조문양

(1) 뇌문

뇌문은 원통형, 항아리형, 방형 화분에서만 확인되며 단독으로 시문되거나 국당초문, 연당초문, 운학문, 운문 등과 짝을 이루며 나타난다. 초기에는 위아래 둘러진 두 줄의 선 사이에 한 줄의 선이 두 번 꺾이는 형태로 시문된다(도 10-1). 이후 위아래 두 줄의 선 사이에 사선형의 선 두 개가 자리하고 그 내부에 한 줄의 선이 두 번 꺾이는 형태와(도 10-2) 'ㄴ', 'ㄱ' 형태의 두 개의 선이 맞물리면서 둘러지는 형태가 함께 보인다(도 10-3). 즉, 초기의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운학문

운학문은 원통형, 항아리형 화분에서 확인되며, 주로 단독으로 시문되거나 뇌문과 결합되기도 한다. 호림박물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文花盆>은 학을 등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구름을 가득 시문하였다(도 11-1). 雲頭는 퇴화하여 'S'자의 줄기만 유지하고 있다. 학은 수평으로 날며 머리 깃, 눈, 부리, 날개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후기로 갈수록 운학문은



도 10-1 <靑磁陰刻蓮花文花盆>, 고려 12세기, 高24.4cm, 口徑31.3~33.3cm, 底徑29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필자 그림)
 도 10-2 <靑磁象嵌蓮池蒲柳水禽文花盆>, 고려 13세기 후반~14세기, 高1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뮤지엄 홈페이지)
 도 10-3 <靑磁象嵌牡丹雲鳳文花盆>, 고려 14세기, 高23.3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부안유천리고려도자』, p.91)



도 11-1 <靑磁象嵌菊花牡丹文花盆>, 고려 13세기 후반, 高27.3cm, 口徑35.6cm, 底徑21.5cm, 호림박물관 소장(『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 靑瓷Ⅱ』, p.95)
 도 11-2 <靑磁象嵌柳蘆雲鶴文花盆>, 고려 14세기, 高15.3cm,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강진청자박물관 소장(『2016고려청자박물관특별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p.172)

간략화·도식화되며 인화기법으로 시문되는 경향을 보인다. 강진청자박물관 소장 〈靑磁象嵌柳蘆雲鶴文花盆〉은 학보다 구름의 개수가 많아졌으며 구름의 모양은 기호화된 모습을 띤다(도 11-2). 또 학은 사실적인 묘사가 결여되었고 경직된 모습이다. 이 같은 운학문의 모습을 통해 14세기경에 제작된 화분임을 알 수 있다.

3) 하단 보조문양

(1) 연판문

연판문은 원통형, 항아리형, 다각형 화분에서 확인되며 음각과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시문된다. 음각기법으로 시문된 연판문은 仰蓮의 이중 연판문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 〈靑磁象嵌雲鶴文花盆〉은 연잎 내부에 작은 연잎을 하나 더 시문하고 빈 공간에는 세선을 그어 잎맥을 표현하였다(도 12-1). 이보다 세밀한 표현은 떨어지지만 이중 연판문을 음각한 사례는 14세기에 제작된 일본 고령미술관 소장 〈靑磁象嵌菊花牡丹文花盆〉(도 12-2)과 강진청자박물관 소장 〈靑磁象嵌柳蘆雲鶴文花盆〉(도 12-3) 등이 있다. 한편 상감 연판문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靑磁象嵌牡丹雲鳳文花盆〉에서 확인된다(도 12-4). 양련의 이중 연판문으로 연잎 내부에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상감 연판문 내부에 자리한 연주문은 동시기 과형병, 대접, 호 등에서도 확인되어 당시 유행하던 양식으로 생각된다.



도 12-1 〈靑磁象嵌雲鶴文花盆〉, 고려 12세기, 高23cm, 口徑28.2cm, 底徑22cm, 보물 1030호, 호암미술관 소장(『湖巖美術館名品圖錄 I 古美術1 陶磁器』, 도28)

도 12-2 〈靑磁象嵌菊花牡丹文花盆〉, 고려 14세기, 高20.7cm, 口徑26.6cm, 일본 고령미술관 소장(『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p.82)

도 12-3 〈靑磁象嵌柳蘆雲鶴文花盆〉, 고려 14세기, 高15.3cm,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강진청자박물관 소장(『2016 고려청자박물관 특별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p.172)

도 12-4 〈靑磁象嵌牡丹雲鳳文花盆〉, 고려 14세기, 高23.3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부안 유천리 고려도자』, p.91)

3. 화분대

화분대는 器臺를 의미하며⁶⁴ 1단부터 3단까지 다양한 높이에 음각, 양각, 상감, 투각 등의 기법이 조합되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도 13). 이를 방증하듯 생산지는 강진과 부안에 집중되어 있으며,⁶⁵ 寺址⁶⁶와 운송로에서도 발견되고 있어⁶⁷ 양질의 고급 기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 13 〈靑磁陰刻牡丹唐草文臺〉, 고려 12세기, 高11.5cm, 上徑14.7cm, 호림박물관 소장(『고려청자』, p.57)

고려시대 화분대의 용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시기 중국의 회화가 도움

이 된다. 송·원대 회화에서 화분대는 亭子의 내부 또는 정원, 마당과 같은 실외에 배치된 것이 확인되며, 화분대의 역할은 주로 花架, 台座, 書桌, 괴석 등이 담당하고 있다.⁶⁸ 이 가운데 花架(도 14)는 본래 제작 목적이 화분대이며,⁶⁹ 그 밖의 것들은 화분대의 용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겸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송·원대의 화분대는 목재로 제작된 花架가 중심

⁶⁴ 기대의 용도에 대해서는 매병, 주자, 화분 받침대 등으로 연구자들 간의 이견이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기대가 화분대로 사용되었을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하겠다.

⁶⁵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1996), pp.461-462, 도769-770-772-773;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5), pp.266-27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앞의 책(1983), pp.14-19; 원광대학교박물관,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2001), p.409, 도28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 第18號 窯址發掘』(2001), p.185, 도54-2.

⁶⁶ 강진청자박물관, 앞의 책(2013), p.86, 도62;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고려청자 다시 찾는 비취색 꿈』(2006), p.148, 도225.

⁶⁷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2007), p.10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0), pp.242-24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II』(2018), p.266.

⁶⁸ 송대 균요에서는 화분과 함께 화분 받침(盆托)을 제작하였으나 송·원대 회화에서는 화분과 분탁의 조합이 자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명대 회화에서 균요 화분과 분탁의 조합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菖蒲 완상이 재유행하면서 官鈎화분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郭學雷, 『官鈎花器用途考』, 『古宮文物月刊』380(2014.11), pp.44-45 참고.

⁶⁹ 花架는 花几, 花台라고도 불린다. 분경을 진설하는데 사용되나 다른 물건을 놓을 수도 있다. 주로 대청, 서재, 침실의 구석에 배치한다. 형식은 方形, 圓形, 六角形, 八角形 등 다양하며 공예가 정교하여 실내에 놓으면 고아하다. 花架는 대략 五代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송·원대부터 제작 수량이 증가한다. 王妙耘, 『架類家具设计研究』, 中南林业科技大学硕士学位论文(2013), pp.17-20.



도 14-1 〈宋人畫萬年青軸〉 세부, 宋 1264년, 견본채색, 129.7×51.9cm,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故宮書畫圖錄(三)』, p.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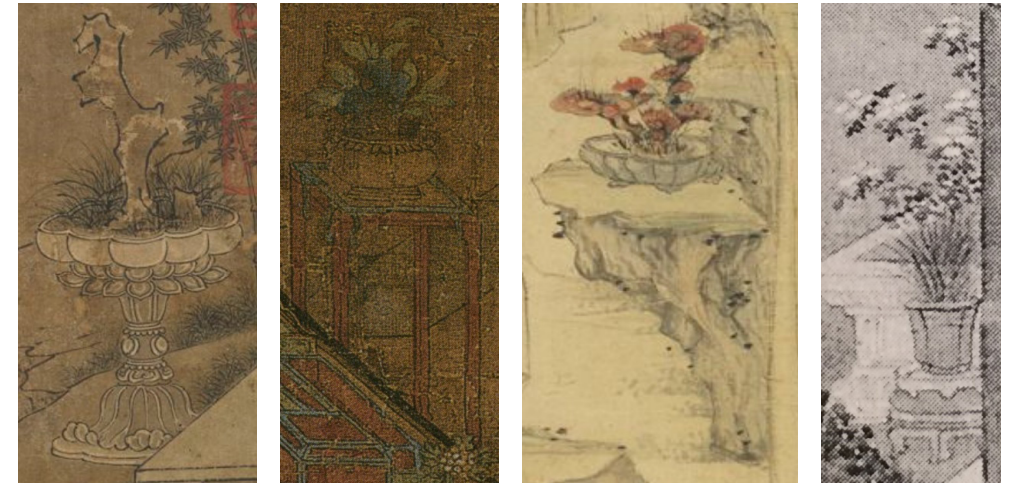
도 14-2 劉松年, 〈宋劉松年唐五學士圖軸〉 세부, 宋, 견본채색, 174.7×106.6cm,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대만 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사례는 자기제 기물을 화분대로 사용했던 고려의 경우와 구별된다.⁷⁰ 이러한 현상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盆花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했지만 소비하는 기물의 재질과 조형은 각기 달랐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중국 회화에서 화분대와 조합을 이루는 화분은 대체로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습은 宋 蘇漢臣(1094~1172)의 〈嬰戲圖〉(도 15-1), 작자미상의 〈盥手觀花圖〉(도 15-2)와 張渥(?~1356 추정)의 〈彌陀佛像〉(도 15-3) 등에서 볼 수 있다. 또 龔開(1222~1304 추정)의 〈天香書屋〉(도 15-4)에는 鼓釘盆托에 받친 화분을 花架에 올려둔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송·원대는 주로 높이가 낮은 화분을 화분대에 올려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狸奴嬰戲圖〉(도 16)에는 화분의 높이가 낮음에도 바닥에 놓아둔 경우도 있어 절대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분대의 사용은 사용자의 취향 문제로 간주할 수 있겠다.

현전하는 고려시대 청자기대도 높이가 10cm 이상으로, 낮은 화분을 올려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고려는 관련된 회화자료가 전무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

⁷⁰ 고려의 화분대 중 특히 다리의 조형에서 목가구와 유사성이 감지되는 예들이 있다. 따라서 목재로 제작된 화분대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전 사례가 전무하여 비교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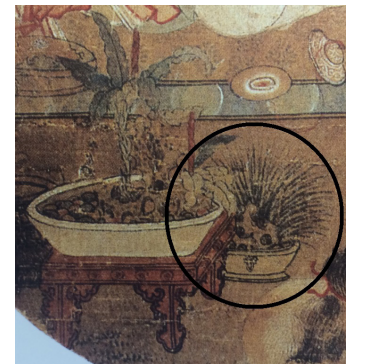
도 15-1 蘇漢臣, 〈嬰戲圖軸〉 세부, 宋, 견본채색, 58.7×34cm,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대만 고궁박물관 홈페이지)

도 15-2 〈盥手觀花圖頁〉 세부, 宋, 견본채색, 30.3×32.5cm, 天津市藝術博物館 소장 (『中國繪畫全集 第6卷 五代宋遼金5』, 도93)

도 15-3 張渥, 〈彌陀佛像軸〉 세부, 元 1336년, 견본채색, 87.5×30.4cm,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대만 고궁박물관 홈페이지)

도 15-4 龔開, 〈天香書屋軸〉 세부, 宋 1253년, 견본채색, 145.3×79.6cm,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故宮書畫圖錄(二)』, p.231)

렵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전기 姜希顔(1417~1464)이 지은 『養花小錄』의 내용은 참고가 된다. 이 책의 「排花盆法」에는 “꽃나무가 높고 큰 것은 뒷줄에 두어야 하고, 짧고 작아 대 위에 올려놓을 만한 것은 앞줄에 배열하는 것이 좋다.”라는 구절이 있다.⁷¹ 조선 전기, 꽃나무가 짧고 작아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화분이 소용되었을 경우, 화분대 위에 올려 앞줄에 배치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고려와 조선이라는 시차는 있지만 송·원의 사례를 참고할 때 고려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16 〈狸奴嬰戲圖〉 세부, 宋, 견본채색, 24.5×25.7cm, 보스턴미술관 소장 (『中國歷代小品畫人物卷』, p.55)

⁷¹ 姜希顔, 『養花小錄』 「排花盆法」 “…花木高大者宜後行短小可上臺上者宜前列…” (강희안·이종목 역해, 앞의 책, pp. 427-428에서 발췌)

3) Ⅲ기: 14세기

Ⅲ기는 14세기에 해당된다. 원통형과 다각형 화분은 제작이 지속되는 반면 향아리형과 방형 화분은 제작 수량이 점차 줄어든다. 문양은 국화절지문, 모란절지문 등이 간략화·도안화 되어 상감 또는 인화기법으로 시문된다. 특히 원통형과 다각형 화분은 기형과 문양 배치 등 그 조형 양식이 조선시대로 이어져 분청사기, 청자, 백자 화분에 표현된다.⁷³ 이처럼 Ⅲ기는 일부 기형이 소멸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원통형과 다각형 화분은 조선시대 화분의 조형에 영향을 미치며 그 명맥이 이어지게 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청자화분이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 기형과 문양을 바탕으로 한 조형적 양식 분석, 제작 시기를 구분해 보았다.

고려시대 청자화분의 제작에 있어 중국 화분의 조형적 영향은 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려 독자적인 기형을 창출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를 삼국시대부터 화훼나 盆花문화를 영위했던 오랜 전통에서 찾을 수 있겠다. 고려인들에게 있어 ‘화분’은 새로운 기종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아있는 기록들은 송·원과 화훼를 매개로 하는 교류의 정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때의 교류는 기물, 즉 화분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화보나 화훼 품종의 도입에 더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고려 사회에서는 이들 화보를 토대로,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화훼 품종에 맞추어 고려 독자적 양식을 지닌 다종다양한 화분을 제작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을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 청자화분의 제작 시기는 Ⅲ기로 나눌 수 있었다. I 기는 12세기 전반으로, 선행하던 도기화분이 청자화분으로 변안되어 원통형, 향아리형 화분이 제

작됨과 동시에 중국 요주요 화분의 영향을 받아 방형 화분의 제작이 전개된다. II 기는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 후반으로 원통형, 향아리형, 방형 화분이 청자화분의 전형적인 기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형인 반형과 다각형이 등장한다. 아울러 제작지가 확대되고 질적 분화가 이루어진다. Ⅲ기는 14세기로, 향아리형과 방형 화분의 제작 수량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원통형과 다각형 화분은 지속적으로 제작된다. 특히 원통형과 다각형 화분은 그 조형의 토대가 조선시대 화분으로 면면히 이어진다.

본 논문은 고려시대 청자화분의 제작 배경, 조형 분석, 제작 시기 구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고찰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지면의 한계와 자료의 부족으로 중국 화분의 종류, 민간에서의 화분 사용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 차후 추가적인 발굴 성과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청자화분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청자화분(靑磁花盆, Celadon flower pot), 화훼문화(花卉文化, Flower planting culture), 완상(玩賞, Enjoyment to see something), 분경(盆景, Penjing), 분화(盆花, Potted flower), 화분대(花盆臺, Flower pot stand), 청자기대(靑磁器臺, Celadon stand)

■ 투고일 2019년 5월 13일 | 심사개시일 2019년 6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10일 ■

⁷³ 원통형과 다각형 화분은 조선시대 들어서도 꾸준히 제작되었다. 도마리 1호, 번천리 9호, 송정동 5호 등 생산지 뿐만 아니라 군기시터, 서린동 등 소비지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道馬里 1號窯址』(1995), pp. 15-16, 18;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廣州 樊川里 9號 朝鮮 白磁窯址』(2007), p. 282, 도260-261, p. 285, 도282-283; 조선관요박물관, 『광주 송정동 5-6호 백자가마터』(2008), p. 146, 도112, p. 148, 도116;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군기시터 유적 (사진)』(2011), p. 99, 도237, p. 153, 도419;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서린동 유적』(2012), pp. 197-198, 도 64-72.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及菴詩集』

『陶隱集』

『東國李相國集』

『遁村雜詠』

『梅湖遺稿』

『牧隱集』

『三國史記』

『三峯集』

『養花小錄』

『太平廣記』

『圃隱集』

2. 한국어 문헌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고려청자의 최근 발굴조사 성과 특별전』, 2013.

_____,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2011.

_____, 『2016 고려청자박물관 특별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2016.

강희안·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아카넷,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Ⅳ 북한의 주요박물관 소장품』, 2004.

국립민속박물관, 『토끼이야기』, 2010.

국립전주박물관, 『고려청자의 頂點을 만나다 부안청자 강진청자』, 2018.

_____, 『전북의 고려청자 다시 찾은 비취색 꿈』, 2006.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도판편』, 1996.

_____, 『강진 운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본문편』, 1997.

_____,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_____, 『廣州郡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道馬里 1號窯址』, 1995.

_____,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 2015.

_____,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Ⅱ』, 2018.

_____, 『태안 마도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2007.

畿甸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조사 보고서〈본문·도면〉』, 2006.

_____, 『龍仁 寶亭里 靑磁窯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조사 보고서〈사진〉』, 2006.

金少英, 『高麗時代 靑磁花盆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나선화·김인호, 『부안 유천리 고려도자』, 전라북도 부안군, 2006.

馬宗樂,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의 歷史의 意義』, 『한국중세사연구』17, 2004.

문종근, 『高麗 前期 靑磁香爐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新案海底遺物』, 同和出版社, 1994.

朴玉杰, 『高麗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 『大東文化研究』32, 1997.

사공영애, 『고려시대 화훼문화와 화기(花器)·화병과 수반을 중심으로』, 『한국중세고고학』5, 2019.

鮮文大學校出版部, 『鮮文大學校博物館 名品圖錄Ⅰ』, 2000.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4.

안예선, 『송대 문인의 취미생활과 보록류(譜錄類) 저술』, 『中國語文論叢』39, 2008.

원광대학교박물관,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200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 第18號 窯址發掘』, 2001.

유진현, 『高麗 方形靑磁의 名稱과 用途에 관한 試論의 考察』, 『東垣學術論文集』14, 2013.

이종민, 『泰安 馬島 해저출토품으로 본 고려 중기 청자의 편년문제』, 『梨花史學研究』42, 201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扶安 柳川里窯 高麗陶瓷』, 1983.

_____,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2007.

장경희, 『북한의 박물관』, 예맥, 2006.

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6.

鄭聖禧,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者들의 思想的 性格에 관한 研究』, 『東方學』4, 1998.

조선관요박물관, 『광주 송정동 5·6호 백자가마터』, 2008.

崔盛洛, 『珍島龍藏城』,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진도군, 1990.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근기시터 유적(사진)』, 2011.

_____, 『서울 서린동 유적』, 2012.

한혜선, 『高麗時代 陶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해강도자미술관, 『高麗時代 後期 干支名 象嵌靑磁』, 1991.

호림박물관,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개관기념 특별전 고려청자』, 2009.

_____,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 青瓷Ⅱ』, 1996.

湖巖美術館, 『湖巖美術館名品圖錄Ⅰ 古美術1陶磁器』, 1996.

3. 동양어 문헌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景德镇民窑博物馆, 『景德鎮湖田窑址 1988-1999年考古发掘报告』, 北京: 文物出版社, 2007.

郭學雷, 『官鈎花器用途考』, 『古宮文物月刊』380, 國立故宮博物院, 2014.

國立故宮博物院, 『故宮書畫圖錄(二)』, 1989.

_____, 『故宮書畫圖錄(三)』, 1990.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窑博物馆, 『宋代耀州窑址』, 北京: 文物出版社, 1998.

單國強·楊丹霞, 『中國歷代小品畫人物卷』,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3.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高麗青磁への誘い』, 大阪市美術振興協會, 1992.

方文, 『古盆收藏』, 『温州人』, 温州日报报业集团, 2011.

北京大學考古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 北京: 文物出版社, 1997.

向群, 『宋代的城市與花卉業』, 『中國史研究』40, 2006.

吳文濤, 『元代大都城南花卉文化的兴起』, 『北京社会科学』, 2010. 2.

王妙耘, 『架类家具设计研究』, 中南林业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刘若琳, 『晚清官窑粉彩花盆』, 『收藏界』, 黄河出版传媒集团, 2006.

李树华, 『中国植物盆景文化史上』, 『花木盆景(盆景赏石)』, 2006. 7.

张文娟, 『宋代花卉文献研究』, 华中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中國古代書畫鑑定組, 『中國繪畫全集 第6卷 五代宋遼金5』, 浙江人民美術出版社·文物出版社, 1999.

4.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려시대 청자화분을 대상으로 제작 배경, 조형적 양식 분석, 제작 시기의 구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려시대 청자화분의 제작에 있어 중국 화분의 조형적 영향은 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려 독자적인 기형을 창출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삼국시대부터 화훼나 盆花문화를 향유했던 오랜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려인들에게 있어 ‘화분’은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사용하던 것으로 새로운 기종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아있는 기록들은 송·원과 화훼를 매개로 하는 교류의 정황을 보여 주지만, 이때의 교류는 기물보다는 花譜나 화훼 품종의 도입에 더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청자화분은 12세기 전반부터 14세기까지 약 300여 년간 꾸준히 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원통형, 항아리형, 盤形, 方形, 多角形 화분의 생성과 소멸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원통형과 다각형 화분은 그 조형의 토대가 조선시대 화분으로 면면히 이어지며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A Study on Goryeo Celadon Flower Pots

Kim, So-young*

This study aims for overall analysi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style, and dating of Goryeo celadon flower pots.

In the production of Goryeo celadon flower pots, the Chinese influence was not strong but original styles were employed. As a tradition of flower planting culture was established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flower pots were not new but familiar vessel that the people of Goryeo knew and had been using for a long time. Historical records reveal that trades of flowers and plants existed with Song and Yuan dynasties of China, but different species and florilegia were more commonly exchanged than vessels.

The celadon flower pots were consistently produced for 300 years, from the early 12th century to the 14th century. Different vessels—cylindrical, pot-shaped, basin-shaped, square-shaped, or polygonal-shaped pots—gained or declined in popularity during this period, but cylindrical and polygonal-shapes prevailed and were continued in Joseon flower pots.

* Curator, Songam Art Museum